

올해 56살인 최정자씨는 2년전 심한 가슴앓이를 했다. 아들 딸을 다 교육시키고 나서 갑자기 물려온 허무감 때문이었다.

특히 아들을 장가보내면서 '나는 누구보다 멋진 시어머니가 되어야지'하고 다짐했던만큼 막상 당당하고 주체적인 신세대 며느리 앞에서 무식하게(?) 옛날 시어머니 노릇을 그대로 할 수도, 평등한 고부관계를 새로 만들어나가기도 힘들어 당혹스럽기만 했다.

"학교 때 숙제로 지루해하며 읽었던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다시 읽으면서 한참을 펄펄 울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하랴, 살림 늘리랴 정말 앞뒤 안가리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노인과 바다>의 노인처럼 만신창이로 버려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최씨는 그때 문득 20년전에 살림을 쪼개가며 모은 돈으로 사두었던 경기도 군포의 땅을 떠올렸다. '남편이 정년퇴직하면 조그마한 가게라도 하나 차려야지' 하면서 집을 더 넓게 늘리는 대신 사두었던 땅이다.

그날부터 최씨는 2시간 넘게 걸리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집과 군포를 버스로 오가면서 건물짓기를 시작했다.



오십 넘어 유치원 원장으로 새 삶을 시작한 최정자씨는 화장실 청소, 식사준비 등 유치원의 굵은 일만 도맡아 하지만 어린이들처럼 마냥 신나기만 하다.

아들·딸 떠나보낸 빈자리 원생을 손자 돌보듯

“내년엔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 등록” 의욕

혼자 설계소·동사무소·구청 등을 쫓아다니고 현장감 독도 많았다. “처음엔 ‘나도 한심한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대로 주저앉아서 안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한 층씩 올라가면서 세나 받는 것보다는 건물을 이용해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시작해보자는 욕심이 생기더군요.”

결혼을 전후해 10여년 동안 국민학교 교사생활을 했던 최씨는 교사경험을 살려 유치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유치원 인가를 받고 유치원생·교사를 모으고, 내부를 꾸미는 일은 하나같이 힘들기만 했다. 유치원에 관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 “손자를 유치원에 보내려는데 어떤지 둘러보러 왔다”고 다른 유치원들을 돌아다니기도 수심차렷었다.

지나해 3월 첫 신입생을 받을 때만 해도 최씨는 불안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돌아가고 할 땐 ‘왜 내가 손자만 봐주면 될 텐데 이 고생을 사서 하나’하고 후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은 최씨가 운영하는 예린유치원은 정원이 넘치게 아이들이 몰릴 정도로 군포에서 이름이 났다. 군포지역에 맞벌이부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유치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을 주고, 아이들을 오후 6시까지 맡아주는 종일반도 운영하는 등 착실하게 운영한 것이 차츰차츰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유치원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유아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할 것같아 내년에는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최씨의 의욕적인 모습은 언뜻 언뜻 새롭게 시작한 삶의 즐거움으로 가득차 있어 보인다.

92.7.5